

보도시점 (전매체) 11.21.(목) 14:00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4곳 창출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 발표

-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 지역대표 벤처빌더로서 기능·역할 등이 담긴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 발표,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에 창경센터가 적극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1일(목)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행사 개요 >

- ▶ (일시·장소) '24.11.21(목), 14:30 ~ 16:00 / 대구중앙컨벤션센터 컨벤션홀(2층)
- ▶ (참석자) 중기부 장관, 대기업 임원, 시·도 관계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유관 협·단체장 등 200여 명
- ▶ (프로그램) 10주년 기념식, 혁신센터 컨퍼런스, 네트워킹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운영중이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천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다.

* 전국 17개 혁신센터(시·도별 각 1개) + 민간 자율형 센터(포항·빛가람, 2개)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2023년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 (출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17. '18. '22. '23.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창조경제혁신센터 10년간 주요 성과 변화 >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되었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 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① 더 깊게(Deeper) : 스케일업·공공투자 기능을 강화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을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으로 센터가 창업패키지를 자율 설정하고, 지역의 스타트업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혁신센터가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연초에 지원 사업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 지원사업 구조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에게 빠르고 간편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별도 펀드 신설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혁신센터를 프리팁스(Pre-TIPS)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프리팁스(Pre-TIPS)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② 더 폭넓게(Broader) : 개방형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혁신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 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

워킹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테크 특화 벨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벨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이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가 1:1로 매칭 투자하는 벨류업 전용펀드도 새로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본이 스타트업에게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혁신센터 인프라 확충 시 파트너 대기업, CVC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병행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센터 공간 내에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 상시적 연결과 협업을 유도한다.

③ 더 가깝게(Closer) :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으나 도시 간 격차는 상당하다. 서울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도시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혁신센터는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 자리잡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센터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예를 들어 충남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후테크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특화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창업정책을 기획·제안하고,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기반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혁신센터의 3대 핵심기능인 ▲창업 ▲투자 ▲개방형혁신 중심으로 조직을 대폭 조정하고,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0년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척박했던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파트너 대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며,

“다만 양극화된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 극복을 위해 혁신센터가 지역의 대표 벤처빌더로서 스타트업에게 가장 친밀한 기관이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민병철 (044-204-7675)
			사무관	정홍주 (044-204-7676)
			주무관	임지현 (044-204-7677)
			주무관	양희진 (044-204-7678)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이정은 (032-450-1174)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김미정 (033-248-791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김대수 (031-780-903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장성만 (055-291-936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권재철 (054-470-264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이관희 (062-364-9137)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실 장	주기중 (053-759-813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서영하 (042-385-0626)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팀 장	전혜영 (051-749-8906)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팀 장	임종현 (02-739-9157)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팀 장	권혁준 (044-999-0231)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조희철 (052-222-9126)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서도원 (032-458-5010)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팀 장	박준성 (061-661-192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신귀수 (063-220-893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팀 장	이재형 (064-710-192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본부장	김재준 (041-536-7812)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자	실 장	홍성표 (043-710-5910)	